

Approche Structuro-Fonctionnelle에 의한 기능불어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박 우 줄
(불어교육과)

1. 서 언

필자는 지난 학기말에 「한국인의 口語불어 학습을 위한 불어 필수文範의 선정」⁽¹⁾이란 연구를 통해, 한국인이 機能언어로서의 불어를 학습하는데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일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기준의 적용을 통해서 편찬이 가능한 갖가지 교재들 중의 한가지 특수한 경우, 즉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능불어 학습용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에 대비한 기본원칙을 抽出해 보는 試圖로서 쓰여진 것이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불어교육과의 현행 교과과정에서 볼 수 있는 <口語불어 실습>이라든가 <생활불어 실습> 등과 같은 교과목이나 또는 餘他 대학의 <회화 불어>나 <불어 회화>와 같은 교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적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따라서 글의 내용 중 극히 일부분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기한 본인의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抄한 것이므로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곳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교재의 구성과 교수법

주지하듯이 일반적으로 교재편찬의 방식은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자료와 교수법이 좌우한다. 교수법은 아래 2-2에서 설명하는 기능구조적 학습법이 최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이를 채택하였다. 자료는 교육목표와의 연관하에서 설정되어야 하되, 기능 언어로서의 기초적인 불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본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모두 필자의 상기 논문에 記述되어 있으므로 그 곳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다만, (중복되기는

(1) 1987~1988년도 문교부 자유공모 과제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논문

하나) 기능불어 학습에 공통적인 일부 기본 개념에 대한 略述만으로 그치기로 한다.

2-1. 학습 자료

대학에서 불어학, 불문학 또는 불국사정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履修과목의 幅輳로 말미암아 langue vivante에 대한 pratique의 기회를 거의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4개년간 180학점의 全 이수과정 중에서 겨우 6내지 12학점의 근소한 비율로 할당되는 langue orale을 위한 시간마저도 이론적인 강의로 충당되기가 일쑤이고 보면 fonction communicative가 강조되는 langue fonctionnelle으로서의 불어 학습 시간이 증시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현 사범대의 교과과정에 생활불어 과목이 설치된 것도 아마 이런 취지에서 엮을 것이다.

기능언어로서의 불어, 다시 말해서 기능불어란 간단히 표현해서, 구조 상으로나 어휘 상으로나 더 이상 추가적인 보충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moyen de communication으로서의 언어의 기능, 즉 불어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불어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1920년대에 발표된 바 있는 Basic English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Basic과 같은 人爲性이 가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불어의 경우 최소한 1,500 이상의 어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 되어 있다.

2-2. 기능구조적 학습법

기능구조적 학습법이란 한마디로 Approche Structuraliste인 Exercices Structuraux를 통한 학습법과 Approche Communicative의 일종인 Approche fonctionnelle과의 절충적인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본 하나의 phrase를 꾸며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규칙을 grammaire (de phrases)라고 할수 있다면, énoncé를 꾸며내는 규칙의 집합은 grammaire énonciativ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 두가지 Grammaire를 배운다는 말이 된다. Approche fonctionnelle에서는 언어의 fonction에 따라 체계화된 Grammaire énonciative와 Grammaire notionnelle을 습득케 한다. 이러한 학습법은 엄밀히 말한다면 Apprentissage fonctionnel-notionnel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이런 모든 학습을 기본문법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을 채택했으므로 이는 Méthode fonctionnelle-structurale-notionnelle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학습자가 어떤 유형의 situation de communication에서 배우고싶은 외국어를 주로 사용할 생각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해 볼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modèles de phrase를 잘 선택하여 배우는 것이 단시일내에 꼭 필요한 정도의 실용적인 표현형식을 익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분야의 표현형식을 습득한

다는 것은 그것이 토대가 되어 앞으로 활용분야를 넓혀 가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언어에 대한 *mécanisme*을 부지불식간에 익힘으로 해서 그 언어 전반에 걸친 *compétence*를 터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논리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 원리는, 행동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아 모든 발화(Enonciation)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행위(Acte)이므로 Acte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욕구(Besoin)가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언어활동(Langage)은 언어활동을 불러 일으키는 욕구(Besoin langagier)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어 교수법에서 말하는 학습동기(Motivation)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원리이기도 하다. Besoin의 강도가 짊으면 짊을수록 그만큼 외국어 학습도 쉬워 질 수가 있다. Besoin은 본래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적으로 조작하기는 그리 쉽지 않으나 Besoin의 성격을 유형별로 검토한 끝에 그 Besoin에 따른 학습법을 택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불어학습자들의 Besoins langagiers는 과연 어떤 것일까? 물론 이것은 어느 나라의 경우라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다. 편의상 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와 학생의 경우의 두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한다면, 일반인의 경우는 유람여행, 상용여행, 특수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 또는 연수여행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각 분야(domaine) 내에서도 여러갈래로 세분된 소분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예컨대 토목, 철도, 수도, 행정 요원들의 연수 또는 시찰여행). 학생의 경우는 교양으로 불어학습을 원하는 고교학생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전공으로 불어를 학습하는 대학생들, 이렇게 2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Besoin langagier의 성격을 규명하기가 한층 더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인의 경우가 학생들의 경우보다 Besoin langagier의 성격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Méthode audiovisuelle이나 빈도 높은 시험제도 등의 도움을 받아 유사한 Besoin langagier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인의 경우는 domaine의 특수성에 비추어 여러분야별의 특수 문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학생, 일반인의 구별없이 갖가지 paramètres를 고려한 문법집의 개발도 생각할 수 있으나, niveau-seuil 단계에서의 지나친 문법의 세분은 도리어 학습자들의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을 뿐더러, 한국의 학습자들은 후술(1-4-1)하는 추가적인 문법을 학습해야하는 핸디캡을 안고 있으므로 필요이상의 paramètres 반영은 회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위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화의 영역은 Besoins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될 수 있으나 특수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의 극히 상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일상적 대화, 즉 전문분야가 서로 다른 public 상호간에서도 쓰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영역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특수적이고 전문적인 여러 대화 영역을 나무의 가지들로 비유한다

면 이 공통적 영역은 나무의 줄기(Tronc commun)인 셈이다. 이 영역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영역일 뿐더러 특수영역에서의 대화형식도 이 영역의 형식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는 이 공통영역의 표현형식에다 특수한 전문분야의 어휘나 표현을 추가하기만 하면 새로운 표현형식을 따로 배울 것 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이 공통적 영역에 속하는 표현형식은 Besoins langagiers의 성격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모든 분야의 학습자들이 다 익혀두어야 할 기본적 영역이다.

특수영역은 이 영역을 넘어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통영역이 끝나고 특수영역이 시작되는 경계선에 해당한다고해서 이 기본적인 공통영역을 이 méthodologie의 창시자인 J.A. Van EK씨는 'Threshold Level'이라고 명명한 것이다(불역: Niveau-Seuil).

2-3. 교재편찬과 교수법

교재는 이미 말한 대로 학생이나 일반인의 경우를 막론하고 Grammaire와 Actes de parole의 modèles structuraux를 핵심으로 짜여져야 하되, 각 학습단위마다 modèles이외에 권말에 추가되는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단어를 구사한 Lectures와 간단한 문법, 그리고 연습문제—이렇게 4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재 편성은 학습시간 수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학습시간 수는 모든 modèles structuraux에 소요되는 시간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전공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주 3시간 단위로(3학점) 2개년간 (12학점, 3시간, 4개학기=216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경우 1개년 이수 코스와 2개년 이수 코스를 위해 Niveau별로 각각 2개의 다른 학습코스를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Manuel의 개발은 위에서 지적한 기본 필수 사항을 준수하며 편성하는 조건이면 형식상의 차이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Lectures와 연습문제를 짜는 데 있어서 특히 창의력이 요구되고, 여기서 제시하는 modèles structuraux는 적절히 배분하여 학습 단위를 편성할 수 있으며, Actes de parole과 Grammaire의 유형(types)을 존중하는 (—즉, 빠뜨리지 않는—) 조건이라면 각 모델들은 임의로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Lectures는 해당 학습단위에서 제시된 modèles structuraux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motivation의 측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흥미로운 내용, 또는 학습자들의 추이에 남을 수 있는 인상적인 내용을 담은, 되도록 짙막한 에피소드를 담은 것이 바람직스럽다. 발음과 듣기(알아듣기)를 위한 뿐만 아니라 situation de communication의 재현을 위해서도, 또 기억을 돕기위한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모든 manuel은 시청각(audio-visuel) 교재로 엮여져야 한다. 또 computer를 사용하여 혼자서 복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computer aided program이나 역시 개인적 복습을 가능케 해주는 V.C.R 용의 program 등도 본교재와 함께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말하기> 또는 <말시키기> 훈련을 위해

서 각 학습 단위마다 해당 modèles structuraux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thème를 반드시 꾸며넣어야 한다. 이것은 각 학습단위에서 modèles structuraux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다.

3. 문법과 어휘의 구성

3-1. Grammaire énonciative를 위한 문법 선정

이 분야에 속하는 문법들은 모두 위에서 언급한 공통영역(Tronc Commun)에 속하는 것으로서 Niveau-Seuil가 제시한 Actes de parole과 Grammaire의 두가지 영역 이외에도 한국의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Interférences에 속하는 문법들을 꼭 편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3-1-1. Actes de parole:

대화의 특수 응용 영역(Domaine d'application)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는 기본적 공통 영역에 속하는 이들 문법들 중에서, Actes de Parole은 Intention énonciative가 어떤 유형의 것인지에 따라서 정리된 문법들의 모음이다. 이는 보통의 Grammaire de phrase에서의 서법 형식(formes—명령문, 의문문, 평서문, 감탄문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Grammaire énonciative에서는 명령, 문의, 부탁, 단언, 승낙, 거절, 찬성 등등 의미 기능적 측면에서 본 énoncé의 종류를 분류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화에서의 특수한 응용영역(domaine d'application)이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본 적용영역, 즉, 쉽게 말해서 대화의 화제(sujet de conversation)를 나타내는데 대하는 말이다. (Acte de parole이란 본래 개인이 갖고 있는 langue에 대한 지식, 즉 compétence를 활용하여 주어진 situation de communication에 부응하는 실지의 발화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approche fonctionnelle에서는 그 행위의 결과인 énoncé를 말하되, 성격상의 유형(type)을 중시하여 쓰는 말이므로 <발화유형>이라 번역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이러한 acte가 적용되는 분야를 필자는 <응용분야(domaine d'application)>라고 부르기로 한다.) Niveau-Seuil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상세한 유형 분류를 통해서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를 대학생들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정리할 예정이며 후술하는 Grammaire의 문법들과의 중복이 없도록 취사선택하여 약 700개의 문법이 되도록 재조정 할 것이다. 이 문법들은 Grammaire나 Interférences의 문법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ublic이 학생인 경우와 일반인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문법들이다. 이 문법들은 아래의 문법 문법들과 함께 modèles을 통한 불어학습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모든 교재에는 이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3-1-2. Grammaire:

이 역시 기본 공통영역에 속하는 문법들로서 actes de parole과 함께 이 méthode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 주의할 것은 이 Grammaire의 문법학습이 반드시 actes de parole의(그

것에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불어와 같은 인구어족에 속하지 않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한국의 불어 학습자들——특히 초학자들의 경우에는 불어 구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actes de parole*의 문법들을 배운다는 것은 무리할 뿐더러 불합리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Grammaire*에서 선정된 문법들은 구조 문법상으로 본 모든 불어의 기본 구조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인구어족에 속하는 다른 외국인이 불어를 학습할 때와는 다른, 한국학습자들만을 위한, 한국 학습자들만을 위해서 선정된 문법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학습자들만이 특히 법하기 쉬운 문법적 오류를 체계화하여 일종의 *Grammaire des erreurs*를 확정시킨 후에 이를 반영한 문법들이 또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한다(예컨대 다음과 같은 불어의 구조들: *Il a l'oreille dure.* 그는 귀가 멀다. *Je lui ai emprunté de l'argent.* 그에게서 돈을 빌었다. *Il s'est fait faire un complet.* 그는 옷 한벌을 마추었다. *Qu'est-ce que tu penses de Paul?* Paul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한 *Interférences linguistiques*의 *grammaire*문법에의 편입은 이 종류의 문법들의 학습도 역시 *actes de parole*의 그것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 학습자로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여기 이 문법들은 모든 기본 구조를 총망라 해야 하며 *actes de parole*의 문법과 중복한다는 이유로 제거될 수는 없다(—반대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actes de parole*의 경우에는 문법의 문법과 중복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type*)이 그로 인해 불구화되지 않는 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문법문법의 수는 학습 시간수를 감안하여 약 300개(135(I); 135(II); 30(Interfér))로 조정하였다((체계 생략))

3-2. *Grammaire notionnelle*의 배려

이 항목에 대해서 *Niveau-Seuil*에서는 공통영역에 속하는 단어들과 그 용례를 *Objets et notions*이라는 제하에 나열하였으되 크게 2가지 *Catégories*로 나누어서 *Notions générales*과 *Notions spécifiques*로 분류하여 놓고 있다. 필자는 한국 학습자들을 위한 조정 과정에서 이들을 공통영역의 어휘에 속하는 기본 단어집(*Lexique de base*)과 특수한 *Domaine d'application*을 위한 *Objets et notions spécifiques*의 두가지로 분류 수록하여 학습자들의 사용에 편하도록 하였다. *Niveau-Seuil*에서는 용례도 함께 수록하고 있으나, 이 용례의 부분은 3-1에서 다른 문법들과 중복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Grammaire notionnelle* 분야에서의 문법 수록은 학습량을 고려하여 특수응용영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였다. 그러나 기본 단어의 학습과 활용은 반드시 구조를 통해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구조주의적 기본 개념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공통영역에 속하는 기본 어휘는 최대한도로 상기한 문법내에서 사용되도록 신경을 썼다. 특수 응용영역에 속하는 어휘로서는 일반인의 잡다한 외국어 사용 목적을 모두 반영시킬 수가 없으므로(—이것은 이 분야의 *Manuel* 작성자들이 짜

야 할 과제로 남겨 놓았다——), 한국의 불어 학습자들의 대부분을 접하고 있는 학생 학습자들을 위한 특수영역의 어휘들만을 일부 수록하였다. 기능적 학습법이 목적인 본 논문에서는 단어를 전통적인 개념으로 본 단어별로 수록 하지 않고 Notion 별로 선정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다른 acception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를 중복으로 보지 않고 두번 또는 세번까지 수록하였다. 따라서 단어수의 개념도 문교부에서 정하는 단어 수의 개념과는 같지 않다. 예컨대 il y a는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처리되지만 전통적 개념에서는 3단어가 된다. 여기서 기본 어휘(Lexique de base)에 속하는 단어들의 수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이것은 최소한 1,500~2,000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 기본 필수 어휘는 문교부가 책정한 600내지 800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문교부는 언어의 기능적 역할보다는 단순한 학업 진행상의 방법론적 배려에만 사로 잡혀 진도상의 수준(niveau)만을 고려한 나머지 <쉬운 불어>에만 치중하다가 그와 같은 <불구적인 불어>를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한가지 예를 들어, 교과서 편찬을 위한 문교부의 1988년도 지침서에는 기본 어휘 중에서 프랑스인들의 일상회화에서 빠트릴 수 없는 'puisque'와 같은 가장 빈도 높은 단어를 제외시키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프랑스의 문교부가 오래 전에 선정한 Le Français Fondamental⁽²⁾의 'Niveau'의 개념에 구애를 받은 것 같다.

그러나 Un Niveau-Seuil⁽³⁾의 서두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Le Français Fondamental은 영어의 Basic English와 같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어휘가 아닌, 단순히 난이도만을 고려해 넣은데 불과한 단어집이다. 이에 반하여 이미 수십년전에 발표된 바 있는 Basic English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록 1,485 단어만으로 구성된 어휘이기는하나, 일상 생활의 필요성에 능히 부응할 수 있게 구성된 기능언어(langue fonctionnelle)이다. 언어의 본래의 Fonction인 communication을 중시하는 교육을 만일 문교부가 원한다면, 고교에서 3년간에 걸쳐 학습하게끔 되어있는 불어가 일상회화에서 불편없이 구사될 수 있는(——비록 그 정도(Niveau)는 낮다 하더라도——) 기능적 언어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get'와 같은 이른바 기능동사 또는 조작동사(operational verb)가 풍부한 영어의 경우와는 달리, 불어가 기능언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500 단어는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고교생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 불어 학습자들은 예외없이 미리 영어에 대한 교양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같은 인구어족일 뿐더러 같은 어원을 가진 거의 50프로 이상의 친족어(mots apparentés)를 가진 불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본 어휘수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학습목적을 망각한 불합리한 소치일 뿐더러, 영어와 유사한 많은 단어를 어렵지 않게 익힐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무시하는, 말하자면, 노력 경제상으로 보아도 불합

(2) Le Français Fondamental에는 Premier degré (1,300 mots)와 Deuxième degré (2,000 mots)가 있다

(3) <Un Niveau-Seuil>, Conseil de l'Europe (1976).

리하기 이룰데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물론 개개의 단어는 실용적인 구조 내부에서 익혀져야만 한다는 구조주의적 원칙은 살려야 하므로 이들 모든 기본단어는 가능한 한 제한된 Grammaire 및 Actes de parole 의 modèles structuraux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언

남아 있는 과제는 대학의 기능불어 교재에 반영돼야 할 필수 문법과 어휘의 선정이다. 여기에는 이미 발표한 기능불어의 기본문법과 기본어휘 외에 대학생의 특수 환경을 고려해 추가되는 문법 및 어휘집이 포함될 예정이나 다음 기회에 발표될 것이다.

Bibliographie

- Coste Daniel et alt.: Un Niveau-seuil (Conseil de l'Europe, 1976).
 Trim et alt.: Threshold level (Conseil de l'Europe, 1973).
 R. Eddy: Un Niveau-Seuil. Présentation et guide d'emploi. (Conseil de l'Europe, 1976).
 F. Réquédât: Les exercices structuraux.
 F. Delattre: Les exercices structuraux. Pour quoi faire?
 M. Boy: Formes structurales du français.
 P. Le Goffic et alt.: Les constructions fondamentales du français.
 R. Renard: L'enseignement des langues vivantes par la méthode structuro-globale audiovisuelle (Didier, 1971).
 Dictionnaire de didactique des langues (Hachette).
 Dictionnaire du français fondamental. (Didier).
 Dictionnair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2 vol. (Larousse).
 Dictionnaire des difficultés de la langue française (Larousse).
 박옥줄: 한국인의 구화불어 습득을 위한 불어 필수문법의 설정 체계화된 modèles structuraux를 통한 불어 학습(사대논총 19집)
 Modèles structuraux의 설정(불어불문학연구 15집)
 Modèles structuraux의 설정(불어불문학연구 18집)
 불문의 구조(I, II) (신아각)

Résumé

Le présent article s'adresse à ceux des professeurs qui auraient l'intention d'élaborer un manuel du français destiné à l'usage des étudiants d'université qui apprennent *le français fonctionnel*, d'après un système d'apprentissage du français, de nature mixte, développée par l'auteur, qui se base à la fois sur des principes de l'approche communicative (du type du "Un Niveau-Seuil" du Conseil de l'Europe) et sur celles de l'approche structurale (du type des Exercices Structuraux) et dont les principes sont exposés dans un autre article de l'auteur ("*Elaboration des phrases-modèles de base pour l'apprentissage par les Coréens du français pratique*, août 1989). Il fait suite au susdit article et constitue une adaptation des mêmes principes à un cas spécial (c'est-à-dire, au cas du cours universitaire).